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5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용심(62x45)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2015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처음 마음으로	08	근본마음에서 참진리를 찾자
특별기고 -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14	관음상으로 해서 생긴 법정 스님 이야기 ①
숨어서 피는 꽃	19	기타 춤추며 걷는 아이
옛날의 금잔디	22	아주 오래된 기억
아름다운 마무리	26	7월 결연대상자 - 정종수 님
내 마음속 풍경	28	어느 효심
따뜻한 이야기	32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참교육 이야기	34	무너진 학교 이것부터 바꾸자
사색의 뜰	38	인지학에 기초한 발도로프 교육운동
실천하며 삽시다	41	내가 먼저 손잡아 줍시다.
향기나는 우체통	42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며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4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45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글·법 정(法 頂)

요즘 강원도 고랭지에는 감자꽃이 한창이라 더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엽게 피어난 그 꽃과 은은한 향기에 반쯤 취할 때가 있다. 감자꽃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나는 고장에 와 지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가 감자를 먹을 때 그 꽃과 향기도 함께 음미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식탁은 보다 풍성하고 향기로워질 것이다.

풀과 나무는 다들 자기 나름의 꽃을 피우고 있다. 이웃을 닮으려 하지 않고 패랭이는 패랭이답게, 싸리는 싸리답게 그 자신의 삶을 꽃피우고 있다.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건 저마다 삶의 가장 내밀한 속 뜻을, 꽃으로 피워 보이고 있다. 그래서야 그 꽃자리에 이 다음 생으로 이어질 열매를 맺는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달프고 딱딱한 나날에 만약 꽃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무미건조할 것인가. 꽃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곱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우리 이웃이다.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과 조화를, 거칠고 메말라가는 우리 인간에게 끝없이 열어 보이면서 깨우쳐주는 고마운 존재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밥주머니를 채우는 먹이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때로는 밥 한 그릇보다 꽃 한 송이가 더 귀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위장을 채우는 일과 마음에 위로를 받는 일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들 삶의 중요한 몫이다.

그런데 이렇듯 아름답고 향기롭고

조출한 꽃이 어떤 과시나 과소비로 전락된다면,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꽃에 대한 모독이요 고문이다. 단 몇 시간을 치장하기 위해 그 많은 꽃들을 꺾어다 늘어놓는 일은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꽃다운 일이 못 된다. 장례식을 비롯하여 행사장에 무더기 무더기로 동원되어 시들어 가는 꽃들을 대할 때마다 탐욕스럽기까지 한 인간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실망과 거부반응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무고한 꽃들을 괴롭히지 말 일이다. 과시와 허세와 탐욕으로 여리고 사랑스런 꽃을 짓밟지 말 일이다.

7월은 연꽃이 피는 계절. 엇그제 전주 덕진공원에 가서 연꽃을 보고 왔다. 해마다 7월 중순이면 마음먹고 덕진에 가서 한나절 연못가를 어정거리면서 연꽃과 놀다가 오는 것이 내게는 연중행사처럼 되어 있다.

장마철이라 그날은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다른 구경꾼도 없었다. 우산을 받쳐 들고 연못을 가로지른 다리

위에서 연꽃만이 지닌 신비스런 향기를 들으면서(맡는다는 표현은 좀 동물적이니까) 연잎에 구르는 빗방울을 한참 지켜보았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방울도 연잎에서는 겨우 좁쌀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다.

빗방울이 연잎에 고이면 연잎은 한 동안 물방울의 유동으로 함께 일렁이다가 어느만큼 고이면 크리스털처럼 투명한 물을 미련없이 쏟아 버리는데 그 물이 아래 연잎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또 일렁이다가 도르르 연못으로 비워 버린다.

이런 광경을 무심히 지켜보면서, 아하 연잎은 자신이 감당할 만한 무게만을 싣고 있다. 그 이상이 되면 비워 버리는구나 하고 그 지혜에 감탄했었다. 그렇지 않고 욕심대로 받아들인다면 마침내 잎이 찢기거나 줄기가 꺾이고 말 것이다. 세상 사는 이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연꽃을 제대로 보고 그 신비스런 향기를 들으면 이슬이 걷히기 전 이른 아침이야 한다.

돌아오는 길에 모처럼 독립기념관에 들러 보았다. 한 가지 일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존경하는 원로 화가로 부터 작년(1992년)에 들은 말인데, 나는 그때의 말을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었다.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 정원에 대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문이 있어, 연못에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백련(白蓮)을 심도록 했다. 그래서 화가는 멀리 지방에까지 수소문을 하여 어렵사리 구해다가 심게 했다.

그 후 연이 잘 크는지 보기 위해 가 보았더니, 아이 무슨 변고인가, 연은 어디로 가고 빈 연못만 덩그러니 있더라는 것.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빈 연못으로 있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어처구니없게도 인위적인 제거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안내판에는 '백련못'이라고 똑똑히 써 있었는데, 8천 평 가까운 그 백련못에 연은 한 포기도 없었다.

이런 현상은 독립기념관만이 아니고 경복궁과 창덕궁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연꽃철이 되어 혹시나 해서

어제 빗길을 무릅쓰고 경복궁과 창덕궁의 비원을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경복궁 서북쪽에 큰 연못이 있어 나는 서울 근교에 살 때 연꽃을 보러 일부러 찾아간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거기 연못 속에 향원정(香遠亭)이란 정자가 있는데 송대(宋代)의 한 학자가 연꽃을 기린글(애련설:愛蓮說)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꽃 향기가 멀리 은은히 풍겨 온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연못에는 연꽃도 그 향기도 자취 없이 비단잉어떼의 비린내만 풍기고 있었다. 경회루 연못도 마찬가지였다.

비원에는 연꽃의 다른 이름인 부용(芙蓉)에서 따 온 부용정(芙蓉亭)과 부용지(芙蓉池)가 있지만 역시 연꽃은 볼 수 없었다. 불교에 대한 박해가 말할 수 없이 심했던 조선왕조 때 심어서 가꾸어 온 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뿔뿔이 나간 이 연꽃의 수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 것인가.

꽃에게 물어보라.

꽃이 어떤 종교에 소속된 예속물인가.

불교 경전에서 연꽃을 비유로 드는 것은 어지럽고 흐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다. 불교 신자들은 연꽃보다 오히려 백합이나 장미꽃을 더 많이 불전에 공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연못에서 연꽃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1993



2015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又泉 高 현 교수 조선대(미술대학 디자인학부)

7월 26일(일) 오전 11시 / 길상사 설법전



“고 교수! 스티커로 쓸 수 있는 연꽃 하나 그려 줄 수 있을까?”

“스님! 열 번이라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 짧은 화상(畫想)으로 스님의 깊고 넓은 사유를 담아 낼 수 있을지...”

“그럼 됐습니다! 각박한 세파에 뿌리박고 살아도, 맑고 향기로운 연꽃 한 번 껴워보자는 우리들의 소박한 소망, 괜찮지 않습니까?”

- '무소유를 추억하다' 중에서

법정 스님 입적 5주기를 맞아 마지막 일요일에는 법정 스님과 함께하신 어른을 모셔서 스님의 사상과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집니다.

7월에는 1981년 봄 불일암에서부터 첫 인연이 닿아 본모임 초창기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를 도안하시고, 지금까지 광주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신 고 현 광주본부장님을 모셔서 '맑고 향기로운 법정 스님의 삶'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본마음에서 참진리를 찾자

글 • 덕 운(德 耘)

연초록의 신록이 점점 짙어지며 여름 더위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광활한 시공 가운데 이렇게 일정한 법칙을 따라 매 절기가 바뀌며 세월이 오고 가는 게 우주의 순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후 그 선법이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그리고 상나화수 존자를 거쳐 27대 반야다라존자에 이르고, 그리고 28대인 달마대사가 그 법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바다를 건너 남쪽 바다에 이르러니 그 지역 광주 자사인 소양이 달마대사를 맞이하고 양 무제에게 보고합니다. 무제가 사신을 보내 달마대사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달마대사에게 묻습니다.

“짐(朕)이 즉위한 이래 절을 짓고 승니를 제도하고 경을 쓴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데 어떤 공덕(功德)이 있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합니다.

“전혀 공덕이 없습니다.”

양 무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찌하여 공덕이 없습니까?”

달마대사가 대답하되, “이는 사람과 하늘에 태어나는 복이니, 그림자가 형제를 따른 것과 같아서 비록 있으나 진실이 아닙니다.” 하니, 양 무제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참 공덕입니까?”

대답하기를, “바른 지혜는 묘(妙)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원래 공적(空寂)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상의 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기를 “어떤 것이 성스러움의 제일 가는 뜻입니까?” 하니 달마대사가 “확연하여 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달마대사는 양 무제가 복에 집착하여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함을 보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위나라로 건너가 소림굴로 들어가 만백 9년을 하계 됩니다. 여기서 달마대사와 양 무제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양 무제와 같이 유루복(有漏福)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참 진리를 구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가 현각스님이 지은 증도가(證道歌)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상보시생천복 (住相布施生天福) 이나
유여양전사허공 (猶如仰箭射虛空) 이라
세력진전환추 (勢力盡箭還墜) 하니
초득래생불여의 (招得來生不如意) 로다.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도다.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노니
내생에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리로다.

이 증도가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지나간 범문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루복(有漏福)을 구하는 것은 현생에는 복을 짓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다음 생에는 그 지은 복을 누리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 생에는 복이 다하여 악도에 떨어지니 괴로움을 받느라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닦지 않고 복만을 구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삼생의 원수와 같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윤회의 괴로움을 끊고 영원한 안식처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복에 집착하는 공부가 아니라 참진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참진리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불성(佛性)입니다.

또, 중생들의 근본 마음이며, 성인

들의 실제이며, 여실(如實)함이며 여실(如實)이 아니기도 하며 여실(如實)이 아닌 것도 아니니, 범부의 마음에 숨었어도 어둡지 않고 성현의 지혜를 나타내어도 번쩍이지 않습니다.

또, 불성(佛性)은 총명함이나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그 손가락의 뜻이 달에 있고, 구태여 말로써 도(道)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것은 도(道)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말만을 귀담아듣고, 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도를 안다고 할 수가 없고, 손가락만을 바라보고 달을 보지 않으면 영원히 달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실하게 공부하려면 항상 언어 밖의 소식을 묘하게 깨달아야 하고, 형상 이전의 실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참으로 공부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세속의 법(法)은 모두가 무상(無常)하고 허전한 뒷맛을 남깁니다. 시작이 있는 것은 반드시 다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이 구하는 복은 다 끝이 있는 유루복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함이 없는 법(法)을 구해야 합니다. 이 진공묘유의 법(法)은 쓰고 써도, 다함이 없으며 허망하지 않습니다. 이 무주의 묘법은 결코 새어나가는 일이 없으므로 언제나 가득하고 원만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 되어 있으며, 이를 선열락(禪悅樂)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선열락을 이를 때까지 좌절하지 말고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경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예와 지금이 있으나 법(法)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에게에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있으나 도(道)에는 성하고 쇠함이 없다. 비록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아무리 말세를 만났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다면 어찌 이익이 없겠는가!”

요즈음 불전(佛前), 불후(佛後)를 핑계 삼고 시대를 탓하며 정법 공부를 게을리하고 복이나 짓자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무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법(正法)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있지만, 법에는 먼 법과 가까운 법이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어리석은 이도 있고, 지혜로운 이도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성함과 쇠함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고금과 성쇠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고, 바른 법은 듣기 어렵습니다.

어찌 시대와 흥망성쇠를 핑계 삼고 도 닦기를 게을리한다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이득이 없고, 다음 생애는 원치 않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자경문〉에서 야운 스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없드려 바라노니, 주인공어! 모를 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속된 인연과

뒤바뀐 소견을 모두 버려라.”

누구든지 진정으로 도를 닦기를 원한다면 뒤바뀐 소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공부를 하려면 뒤바뀐 소견부터 버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뒤바뀐 소견을 버릴 때, 헛된 욕심이 사라져서 마음이 맑아지고, 맑아지면 도(道)에 매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도(佛道)! 이것은 생사를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 부처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듯이 이 불도를 성취하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염불(念佛), 참선(參禪), 관법(觀法), 주력(呪力), 경전공부(經典工夫) 등입니다. 어떤 길로 가도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지만, 그 길에도 돌러기는 길과 지름길이 있듯이 이 불도를 성취함에도 더딘 길과 빠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참선법을 권하며 참선법 중에서도 화두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생사의 큰일(生死大事)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祖師)의 공안(公案)을 잘 참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안 속에 모든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안을 투철하게 깨치게 되면 자기의 생사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고 우주의 근본 이치까지도 풀려버립니다. 큰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물러나지 말고 용맹정진해 가야 합니다. 일념으로 화두를 간절히 참구하는 것이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간절 절(切)” 이것이야말로 참선법의 가장 요긴한 방법입니다.

간절한 일념으로 크게 의심을 일으켜 꾸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화두법의 가장 요긴한 점이고,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얀겨 결제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내일 내일 미루다 보면,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사

는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되고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자기의 모든 것을 불사하며 산다면 무슨 후회가 있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심법요(傳心法要)에 나오는 황벽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심(無心)의 이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도(道)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으로 차별상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여 모두 도(道)와는 등지고 있다. 갠지스 강의 모래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제석천, 범천 및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하여도 성내지 않는다. 또한, 이 모래는 보배나 향기를 탐내지도 않고, 퐁이나 오줌, 악취, 쓰레기 등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無心)이니 모든 차별상을 여윈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차별이 없으니, 다만

이렇게 무심(無心)하기만 하면 그것이 궁극적 깨달음이다.”

황벽 스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고 인위적인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깨달음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은 인위적인 사고나 행동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에 모든 번뇌 망상들이 사라질 때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심(無心)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道)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행복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삶을 살 때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며 또 만족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佛紀 2559년 5월 초하루 법문
(2015년 6월 16일)

여름 휴가철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참배객 유의사항

길상사는 스님들의 수행처이자 불자들의 기도처입니다. 길상사를 찾는 관광객&참배객께서는 사찰 방문 시 유의사항을 잘 지켜주시어 수행은 물론 마음의 쉼터로서 모든 불자가 자랑스러워할 맑고 향기로운 도량으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나치게 노출된 옷(짧은 치마, 짧은 반바지, 소매 없는 상의 등)이나 슬리퍼를 신고 도량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으로 애완동물, 자가용, 자전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서 음주·흡연을 할 수 없으며, 음주를 한 채 경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도량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러운 행동, 지나친 애정표현을 자제해 주십시오.
- 사진 촬영 예절을 지켜주세요.
(법당안 사진 촬영 금지, 동의 없이 스님의 모습을 찍거나, 꽃을 훼손하며 사진을 찍지 마세요.)

관음상으로 해서 생긴 법정 스님 이야기 ①

글 • 최종태(서울대명예교수)

어떤 날 내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을 때 이상하게도 나는 무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정 스님한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길상사 윗방에서 있을 때는 그냥 차만 마시고 서로 보고만 있게 됩니다. 무슨 사무적인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집에 있을 때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님은 즉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불가에서는 그럴 때 독화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항상 그렇게 단답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설명을 붙이면 오히려 이상했을 것입니다. 듣는 순

간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는데 방법이야 어떻든 우선 그 화살을 뽑고 봐라 할 것입니다. 이 화살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독이 묻었으며 어떤 약을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았다가는 그러는 동안에 독이 깊어 사람은 죽을 게 아납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우선 화살을 뽑는 데 총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을 사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더 묻지를 않고 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책을 많이 읽으셔서 말하기가 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괜찮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방면의 책들을 보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고 중국 그림 얘기를 했다가 서양 그림 얘기를 했다가 해도 서로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스님도 나하고 얘기하기가 편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글을 잘 쓰시고 또 독특한 문체가 있습니다. 소설가도 일가를 이루어야만 자기 문체가 생기는 것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틀림없이 젊어서 시와 소설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읽히는 글을 씁니다. 남녀노소 간에 하는 직종의 어떤 사람이건 간에 무식 유식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읽힙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또 글에 매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책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의 매력이 있으면 글의 매력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은 또 무슨 일이었든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그 날 들고 오신 책이 「진리의 말씀」이란 책이었습니다. 꼭 책을 한 권씩 들고 오셨습니다. 토막

글이라서 읽기도 편하고 아무데나 펼쳐서 읽다가 덮으면 되고 한두 편 읽다가 덮으면 부담이 없고 좌우간 편한 책이었습니다. 지금도 머리맡에 꽂혀있습니다. 이 양반 참으로 대단하다. 글도 딱 떨어지게 빈틈이 없고 시처럼 군더더기가 없고 그 정신의 높이는 정도가 성인의 경지가 아닌가. 이것은 성인의 어록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년에 알게 된 일인데 우연히 표지 모양을 보다가 “법정 율김”이란 글자를 보고서 놀랐습니다. 「법구경」을 번역한 것인데 워낙 글이 잘되고 번역 냄새가 없어서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법구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완전한 한국 말로 법정의 말로 옮겨 적은 것이어서 내가 전혀 번역이란 생각을 못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문장으로 번역으로 천재입니다. 그 책 진리의 말씀이 번역이란 것이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또 우리 집에서 마주 앉았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불쑥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 우연히 불경 공부를 하었는데 얼마 후에 하숙방 친구의 성경책을 집어 들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읽었다 할 만큼 읽었다기보다 가슴에 찍혔다 할 만큼 책장을 넘겼고 그게 뜻으로 읽혔다. 불경을 공부했는데 어째서 성서가 뜻으로 가슴으로 읽혔느냐? 하고 물었을 때 법정 스님이 지체 없이 그 야말로 총알같이 한 말씀이 나왔는데 “최 선생이 그때 경을 읽는 눈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1957년의 일인데 실로 40여 년만의 숙제가 단박에 풀렸습니다. 경을 읽는 눈이 열렸다! 그 한 말씀으로 나는 단박에 알아 들었고 가슴속을 가렸던 거대한 산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더 묻지를 않고 그 일은 그 것으로 끝났습니다. 흘러간 40년 동안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한 터에 법정 스님 한마디에 그야말로 단칼에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통쾌한 일입니다. 직관. 꿰뚫는다는 것, 통달,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창동 가나화랑에서 내가 전시회를 하고 있을 때 하루는 덕조스님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옆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백 년의 세계미술사를 보면 화가들이 인간을 그리지 않았고 자연을 그리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얼마가 지나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지금 기차를 타고 있는데 법정 스님 책을 들고 있다가 심심해서 읽고 있는데 내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읽어 주는데 전시장에서 최 교수를 만났는데 20세기 백 년에 화가들이 자연과 인간을 그리지 않았다 하는 대목이 있어 반갑다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 말을 글로도 쓰고 사람들 만나면 말을 많이 했는데 법정 스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미술가들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추상 비구상 하는 미술의 대세에 가려져서 별

불일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루오, 미국에는 벤산, 독일에는 벡크만 이 태리에서는 기리코등 좋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자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접어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파괴, 물질이 범람하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수십억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인다는 사실, 구원에 대한 외침은 그냥 메아리와 같습니다.

길상사 맨 윗집은 범회 날이 되면 응접실 같았습니다.

그 날은 좀 번잡했습니다. 날씨는 청명하니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어떤 풍채 좋은 젊은 스님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면서 큰 소리로 “저 그만 내려 갑니다. 큰 스님 절 받으십시오.” 말을 맺기도 전에 손이 방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법정 스님 벌떡 일어나면서 만류를 하시면서 “나 큰 스님 아닙니다.” 하시면서 맞절을 하시는데 내게는 그 풍경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기에 좋고 법정 스님도 예상 밖의 그

런 사건을 만난 모양인데 그 대처하는 모습이 진실 되고 방안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었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관음상을 길상사 마당에 만들게 된 것은 갑자기 법정 스님이 해보자 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일이고 평소에 만들고 싶다는 말을 여기저기에서 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명동 교구청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났을 때 언젠가 내가 관음상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는데 천주교회가 나를 파문하는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면 서 일본 천주교 박해시대 말씀을 하셨습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관음상을 놓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 안 보이는 데다 십자(十字) 표시를 했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당시 기독교신자 작곡가 나운영 선생이 찬불가를 만들었다 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말이 들릴 때였습니다. 그러던 뒷날 동화작가 정채봉 씨하고 누가 법정 스님 만나서 얘기가 된 것이고 일이 급격히 진행된 것입니다. 내가 만들면 현대조각으로 내 작품으로 만든다는 얘기에 그제 만만치 않은 일이란 것은 다들 아는 이야기이고 법정 스님한테 이야기가 된 것은 그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그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

은 즉각 추진되었습니다. “합시다.” 해서 스님이 저희 집에 인사차 오셨습다. 1999년의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일절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내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을지 궁금한 표정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스님의 마음은 다 만 들고 현장을 마지막에 갔을 때도 길 상사 마당에 세워놓고서도 점안식을 하던 날도 그 후로 돌아가시기까지도 일체 표정이 없으셨고 신기한 것은 나도 일체 걱정이 없었고 불교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염려 등이 정말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아무리 서로 마음을 믿었기로 서니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어찌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8월호에 계속)

최종태 교수님께 '법정, 마음에 꽃 피우다' 강연을 의뢰하였으나, 말주변이 없다며 극구 사양하시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은 2011년 6월 30일 천주교회 명동대성당 게스트홀에서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강원용 목사 이렇게 세 분을 기리는 범 종교행사에서 법정 스님에 대하여 추모하는 최종태 교수님의 연설문 초록입니다. 분량상 2회 나눠 담습니다.

기타 춤추며 걷는 아이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부름의 전화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원활동자를 만났다. 중증장애인을 돕는 일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원활동자들은 한결 같이 도와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큰 감동을 주었던 뇌병변장애 소년도 자원활동자들을 감동하게 한 사람 중 한사람이다.

미남 미녀라고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자자했던 부부 사이에서 소년은 태어났다. 소년이 태어난 지 12일, 아직 엄마의 체취조차 맡을 수 없을 때였다. 그날은 아침부터 까마귀가 울었다고 한다.

늘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와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와의 불협

화음은 그날도 계속되었다. 그날 아버지는 극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한 날들은 1년을 조금 더 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상여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갈 때 어머니는 실신하여 깨어나지 못하였다. 그때도 소년은 깨근깨근 잠들어 있었다. 소년이 잠들어 있는 동안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되고 있었다.

재산상속 문제가 이면에 깔려있으면서 표면상론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바라고 어찌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다면 아이와 정이 들면 안 된다”며 고모들의 강압으로 소년과 어머니의 상면은 금지되었다. 육아 경험이 없는 고모들은 신생아 황달로 밤낮없이 울어대는 소

년을 여러 날 돌보지 않아 중증뇌성 마비 장애인인 되었으나 목숨만을 연명하게 했을 뿐 어떤 조치도, 재활 교육도 하지 않고 6년 동안 내버려두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가 고모들로부터 소년을 빼앗다시피 데려오는데 성공하였다. 할머니는 자신으로 인하여 자식이 죽었고 손자마저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는 죄책감으로 죄인처럼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도시락 반찬도 팔고, 때로는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였다. 남들이 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 소년이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쫓겨난 아이를 되찾아오는 것 같았다.

소년은 할머니가 시장에 가고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행사하는 시장까지 뒹굴며, 기며, 온몸에 흙투성이가 되어 찾아 나서면 동네 아이들이 따라 다니며 돌을 던지고, 연탄재를 던지며 놀려 대었다. 할머니도 소년

도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울기도 했고, 기억에도 없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 슬피 울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년에게 유일한 친구는 할머니께서 사다 주신 라디오가 전부였다. 라디오에서 부름의 전화도, 장애인학교도, 여러 장애인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 소식은 소년에게 새로운 용기를 심어 주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래서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삼육재활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소년의 나이가 이미 17세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낙심하는 소년에게 학교입학은 안 되지만 수술을 하면 장애 정도가 좋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소년은 어떠한 고통도 참아내고 몇 번의 수술을 받은 결과 불안정한 걸음이지만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소년이 걸어갈 때면 왼쪽 팔은 사정없이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오른쪽

팔은 옆구리에서 아래, 위로 흔들렸다. 발걸음은 넘어질듯 넘어질듯 아슬아슬 위태로웠다. 할머니는 그렇게 걷는 소년에게 “기타 춤추며 걷는 아이”라고 했다. 걷지도 못하던 소년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기타 춤추며 걷는 아이”라고 할 때마다 소년은 환하게 웃곤 했다.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그러나 영세민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너무 적은 돈이고 취로사업장에 나가 벌어오는 돈은 소년의 용돈에도 부족한 형편이라 할머니는 궁리 끝에 74세라는 노구를 이끌고 건축현장에 가서 현장감독을 만나 나이를 숨기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며 일거리를 달라고 애원했다. 며칠 일을 시켜보고 결정하겠다는 현장감독은 할머니의 성실함과 열정에 감동하여 계속 일을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컴퓨터는 소년

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 주었다. 컴퓨터에 빠져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수록 향학열은 더욱 커져갔다. 자원활동자의 도움과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제 소년은 떳떳하게 삼육재활학교 중등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고, 장차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는 일이 남아있다. 컴퓨터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어머니의 주소와 전화번호, 직장까지 알게 되었다. 소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생후 20일도 안 되어 헤어졌던 모자간의 첫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날 장소로 정신없이 달려온 어머니는 “기타 춤추며 걷는 아이”가 제 아들임을 쉽사리 알아차리지 못했으나 이름을 확인하고는 소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뿐 침묵이 흘렀다. 19년 만의 상봉이었다. 소년은 마침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려야겠다.

아주 오래된 기억

글 • 윤언덕



내가 갓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은 부산항이 내려다보이는 영주동의 판자촌에서 살았다. 이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1960년대 초반 부산항 전경을 담은 사진인데, 살던 집이 지금의 메리놀병원 부근이라 했으니 사진을 찍은 위치쯤 될 것이다. 한국전쟁 때 영천전투에서 인민군의 총탄에 다리를 다쳤던 아버지는 국가로부터 상이군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총상의 후유증으로 한쪽 엄지발가락이 굽어 있었고 종아리 살 반 정도가 없

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미한 장애라는 이유로 상이군인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곡괭이를 들고 1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지금은 온천장으로 유명한 동래구 온천동까지 노동일을 하러 다니셨다. 그걸로 겨우 가족들 입에 풀칠하였는데 그걸 못하게 된 몇 주일이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 저격범, 안두희(安斗熙).

삼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게서 직접 들은 아주 오래된 기억 속의 이야기는 이렇다.

내가 태어나던 그해 호열자(虎列刺)라고 불리던 콜레라가 유행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은 다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영주동 판자촌에는 이촌향도 현상으로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로 가득했다. 우리 가족이 살던 판자집 근처에는 큼직한 적산가옥(敵産家屋)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안두희가 살았던 모양이다. 감기였는지 영양실조였는지 돌이 채 되지 않은 내가 몇 주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안두희는 콜레라로 짐작하고 우리 가족이 살던 판자집 주위에 철조망을 둘러 출입할 수 없도록 봉쇄해버렸다. 아기는 고열에 시달리고 가족들은 계속 굶고 있는데 동네 양아치가 쳐놓은 철조망 때문에 힘든 노동일마저 할 수 없었던 30대 중반인 가장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안두희는 1948년 육군사관학교 8기 특3반에 입학한 뒤 1949년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의 추천으로 한독당원이 되었는데 이는 백범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었으며, 당내 내분으로 조작해 배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는 게 역사학자들의 분석이다. 현역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는 1949년 6월 26일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개인 저택인 경교장에서 4발의 총탄으로 백범을 암살하였다.

그는 1949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중앙고등군법회에서 종신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국방장관 신성모가 육군참모총장 채병덕의 상신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고, 서울 육군 형무소에서 복역 중 6·25 전쟁으로 인해 1950년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되었다.

안두희는 그해 7월 신성모 국무총리서리 겸 국방장관의 국방장관 특별명령 4호로 육군 소위에 원대 복귀하였다. 이후 그는 중위로 진급하였고, 1952년에는 신성모의 명령으로 형이 면제되었으며, 12월 25일 소령 진급과 동시에 예편하였다.

1군사령부 관내 전 사단에 공급하는 군납 식료품(두부·콩나물·쇠고기·돼지고기등) 공장인 [신의기업사(信義企業社)]를 강원도 양구에서 1956년 10월부터 10년 정도 창업하여 경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형

을 면한 데다가 1년여밖에 복역하지 않았으며, 석방 후 군부가 군납사업을 알선해 주었던 사실에서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거나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분석한다.

1960년 4·19혁명 직후인 6월 26일 결성된 '백범 김구 선생 시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0개월여의 추적 끝에 1961년 4월 18일 안두희를 붙잡아 김구 암살의 배후를 자백받고 본인의 요청으로 검찰에 인계하였으나 조사받기는커녕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불가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테러당할 우려가 있으니 당국에서 보호조치를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에 귀가 조치되었다.

1950년대엔 거리를 활보했던 백범 암살범 안두희(安斗熙)는 1960년 4·19혁명 직후 [백범살해 진상규명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창숙)가 결성되면서 '도망자가 되었다. 이 시기에 안두희는 부산 영주동으로 잠입한 걸로 보인다. 그는 '법적 시효'로부터

는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역사의 시효'를 믿으며 그를 응징하려는 사람들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1965년 12월 20대 후반의 청년이던 곽태영(郭泰榮·백범독서회 회장) 씨는 강원도 양구에서 군납업을 하고 있던 안두희를 공격했다.

1996년 안두희가 박기서(朴奇緒)씨라는 버스 기사에게 '응징'을 당하고 척살되었을 때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권중희 씨.

대한민국에 민족정기가 부재함은 백범 암살자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처단하지 못함이라고 믿었던 그는 평생을 그 실천에 옮긴 기개 높은 사람이다. 스스로 만든 단체인 민족정기구현회회장인 권중희 씨는 정의를 향한 '집요한 응징자'였다. 15세 때 <백범일지>를 읽고 백범을 민족혼으로 받아들인 그는 1980년대 초 안두희가 미국 이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하고 추적에 나섰다.

권중희 씨는 1987년 서울 마포구

청 앞에서 몽둥이로 안두희를 공격한 것을 시작으로 1991년 한 차례, 1992년 세 차례에 걸쳐 응징을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암살 배후에 대한 안두희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후의 응징자'는 박기서 씨였다. 버스운전기사였던 그는 1996년 10월 23일 인천 산흥동 안두희의 집을 찾아가 이른바 '정의봉'으로 안두희를 처단했다. 박 씨의 집에서는 권중희 씨가 쓴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등 백범 관련 서적 10여 권이 발견됐다.

인생에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2007년 권중희 씨가 심장마비로 타계하자 아주 오래된 기억, 안두희에게 술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젊은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진다. 6. 25 전쟁 이후 10년 정도가 지났을 그때, 살기

가 참으로 막막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사셨고 미래를 생각했을까. 새삼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인류의 긴 역사를 감안할 때 한 인간의 세상살이는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리하여 자신이 이루지 못한 진정성을 시간이 지난 후에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곤 한다. 삶이라는 인간의 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우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우연의 본질을 교묘하게 숨기고 단지 단순한 겉모양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애매모호한 것은 없다고 누군가 말했다. 그런 점에서 내 어릴 적,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부모님은 하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윤부혁 '우연덕'이라는 필명으로 '인문학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젊은 세대들이 필히 읽어야 할 고전'에 한정하여 글을 쓰는 블로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그룹에 입사하여 20년 가까이 근무했으나 본업보다는 '책읽기와 '생각'하는데 지나치게 몰두하여 임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영문 번역, 기업체 사보 편집일 등을 하고 있으며, 틈만 나면 지리산 근처에 내려가 친환경.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펼칠 수 있는 '적당한 터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7월 결연대상자 - 정종수 님

“눈이 어두워 늘 방안의 형광등을 모두 켜 놓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이 다 켜져 있어야 환하고 좋습니다.” 올해 63세 되신 정종수님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뇌의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자신의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20~30대에게서도 발병하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흔하다고 하지요.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다만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배뇨장애, 실명, 반신마비, 운동장애, 사지 마비, 심리적 위축에 따른 우울증 등이 있어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지요.

정종수님은 3년 전 갑상선 수술 후 운동화 끈을 매다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발성 경화증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데다가 불치병이라는 사실에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 다. 발병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오른 눈은 이미 안 보이고 왼쪽 눈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최근에 각막염이 생겨 눈이 빨갛게 피가 나고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오른쪽 눈에 각막염이 와서 다행이라고 하시더군요.

방학동의 ‘바로선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대가 끊어져서 걷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인공관절 수술처럼 큰 수술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무겁고도 쓸쓸

한 목소리로 답하시더군요. 치료비가 150만 원이나 되나 수급자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적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눈 치료와 무릎 수술은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더 근본이 되는 것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이지요. 치료라고 해봐야 하루 2알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고, 이틀에 한 번 한 달 약값이 13만 원이 넘는 베타 인터페론을 직접 주사하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순 초반으로 한참 인생을 누려야 할 정종수님은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의지가 되었던 75세 옆집 어르신님의 사망으로 그 정도는 더 심해졌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산다는 말은 현재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원래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이 화통하고 활발해 통장 일을 할 정

도로 외향적이었던 정종수 님! 그러나 이제는 아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지나칠 것이기에 밖에 나가는 것이 극도로 꺼려집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요. 전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지금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을 정도로 식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정종수 님 곁에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 33세 딸과 가끔 통화할 뿐이지요. 아들은 36세로 경기도에 살지만,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병원 갈 때 70세가 넘는 언니 중 한 분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희망해’ 온라인 모금과 더불어 베타페론 주사제 2년 치 비용 312만 원을 모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종수 님을 방문해 안마도 해드리며 공원에도 산책을 나갈 수 있도록 봉사자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어느 효심

글 • 이정숙(수필가)

고해소(예전 고백소) 안에서 있었던 일이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못한 걸까, 안 한 걸까. 부끄러워 적당히 뭉개고 싶다. 못한 것이라고 해도 고해 사제는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양심은 그로 인해 오래도록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직하게 응답한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속이 커졌다.

“부모님 생각하며 묵주기도 5단 바치세요.”

지는 죄에 비하면 그것도 약하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이 넘도록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릴 때가 있다. 아니다. 못 드린 게 아니라 전화 한 통 안 드린 것이다. 바쁜 건 사실이지만 아무려면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을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래놓고선 다음번 고해성사 때 또 같은 죄를 끼워 넣게 된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한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고해는 죽는 날까지 수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주인공 왕일민(중국)은 몰려드는 취재기자들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

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다 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왕 옹을 금세기 마지막 효자이자 효심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응답한다.

“저는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지는 잘 압니다.”

즉 자신이 어머니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효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뿐이라는 고백이다.

죄의 기준이 되는 천주교 십계명엔 ‘하지 말라’ 것들이 여덟이고, ‘하리’는 명령이 둘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하지 말라는 금기만 잘 지키면 되는 줄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금기 이면에는 ‘하리’는 명령이 숨어 있다. 즉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얘기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은 것을 넘어 서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요약

하자면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은 물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 구경하고 싶다.”

100세가 코앞인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혼잣말을 하신다. 74세인 늙은 아들은 일생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어머니의 바람을 흘러들을 수가 없다. 그는 곧장 결심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 드리자.

하지만 가난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선뜻 길을 나설 수가 없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은 얼마를 가야 당도할지 모르는 머나먼 서장이 아닌 단가. 서장은 세계 최대, 최고의 고원인 티베트에서도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히말라야와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맥과 빙하로 이루어진 남쪽,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 그런 서장을 평생 산골에 붙박여 살

아온 어머니가 어찌 아셨을까.

그들이 사는 곳은 중국에서도 최남단인 탐하. 탐하에서 서장까지 자전거수레로 간다고 하면 남들이 다 웃을 일이지만 가난한 아들은 어머니를 자신이 손수 만든 자전거수레에 태우고 정처 없는 소풍에 나선다. 이유는 딱 하나. 어머니가 원하니까.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모자는 노숙을 하기도 하고 마을이 보이면 들어가 신세를 지기도 하며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는 서장을 향해 가지만 가도 가도 서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길 위에서 2년 반. 모자는 꽃도 보고 바다도 보며 쉬엄



▲ 어머니를 자전거수레에 태우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왕일민씨, 어머니가 바깥 풍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사방에 창문을 냈다.

쉬엄 서장을 향해 간다. 하지만 노령과 긴 여행에 지친 어머니는 갈수록 쇠잔해져만 가고…….

끝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아들은 유해나마 어머니를 서장에 모셔다드리기 위해 다시 자전거수레를 타고 길을 나선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상실 때문이었을까.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아들은 길 위에서 몇 번씩이나 혼절한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유해를 서장에 뿌려드리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는다. 그의 소식을 들은 당국은 엔진을 장착한 수레를 장일민 용에게 선물하고 덕분에 그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릴 수가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소풍을 떠났던 2년 반과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유해를 서장에 뿌리고 돌아오기까지 7개월. 모두 합해 3년 1개월 동안 그가 다녔던 거리를 합하면 대략 10만 리

로 추정한다. 비행기나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수레였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과업을 마친 장 옹은 이렇게 말한다.

“형벌로써 감해지거나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나는 그때 이미 생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다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내 마지막 사랑이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함께 한 900일간의 소풍〉을 읽으며 몇 번씩이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친정아버지는 물론, 세 부모님께 진 빚이 좀 많은가.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사회와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동전 모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종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각 지역 모임에서도 동전 모금통을 배포하고 있으며, 모여진 동전은 지역 모임으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지역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꿈도 웃음도 많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많던 17세 소녀가 꿈꾸는 20살은 그저 남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아 알콩달콩 살아가는 생각만 해도 벽찬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어둠의 손길!

그 손길은 소녀의 꿈을 짓밟았고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채 피어보기도 전에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941년, 하얗고 앳된 얼굴의 소녀와 세 명의 친구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일본인에게 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울고 또 울었지만,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를 트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4년 동안 부산과 일본, 대만을 거쳐 홍콩,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끌려다니며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4년간의 비극이 그녀의 모든 삶을 무너뜨렸고, 새하얗던 소녀의 얼굴은 어느새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극악무도한 일본군에게 다시 잡혀 때릴 데도 없는 어린 소녀를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그렇

게 지옥 같은 4년을 보낸 소녀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해방되던 그 날,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의 나이는 21살, 너무도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에 돌아왔지만, 그녀는 고향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고 미치도록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무너뜨린 일본인들의 만행에 그녀가 꿈꾸던 장밋빛 삶은 핏빛으로 채워졌고, 17살 이후로 행복함에 크게 웃어본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산, 마산, 서울 등에서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하며 마지못해 살아왔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17살이었던 소녀는 91세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한을 풀지 못한 채 2015년 5월 27일, 한 많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웃음 많던 소녀의 작고 소박했던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하고 꿈으로 남긴 채 눈을 감은 그녀. 그녀의 이름은 ‘이효순’…….

그렇게 일본인에게 꿈을 짓밟히고, 웃음을 빼앗긴 그 소녀들이 이젠 스나섯(52)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의 소원은 단 하나.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

천벌은 아닐지언정 당연히 받아야 할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떠난 故 이효순 할머니님과 먼저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비영리 단체 ‘따뜻한 하루’

무너진 학교 이것부터 바꾸자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학교위기가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다. 혁신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인간힘을 다하지만 그런 노력들은 수능이라는 괴물 앞에서 멈춰 서고 만다. 어렵게 초·중학교에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 살리기 불씨를 붙여 보지만 일반학교,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영재 학교라는 서열의 벽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다. SKY가 지배하는 사회, 이 현대판 카스트제도는 바꿀 수 없는 것일까?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 혁신학교 주변 지역에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는 혁신학교는 일반계 학교와 어떻게 다를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운동은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의 혁신학교, 전남의 무지개학교, 광주외 빛고을혁신학교, 강원도의 행복더하기학교 등 명칭은 다르지만, 공공성, 창의성, 민주성, 역동성, 국제성 등 혁신교육의 기본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새로운 유형의 공교육 모델이다.

기존의 학교가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주입식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 반해 혁신학교는 학교 교육의 수준과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교육기회와 가능성을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누리도록 하고(공공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를 혁신한 창의지성교육을 실천하며(창의

성), 민주적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참여문화를 실현하고 권리의식과 책무성을 자각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민주적인 학교다.

이러한 혁신학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다양한 교육역량을 계발하여 역동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역동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평화와 소통, 협력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추진하는 학교라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군포의 학운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해요.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안 간다고 떼를 쓰던 아이였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학교입니다.”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다.

학교 살리기 가능성을 믿어도 좋을까?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혁신학교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는 달라도 오늘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모순이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부 모순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기까지다. 그동안 혁신학교의 수는 꾸준히 늘어 2013년 9월 현재 경기도에 227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575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초·중·고에서 혁신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5.3% 정도이고 경기도 내 초·중·고 대비로는 12.4% 정도다.

오늘날의 학교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를 하다 보니 교육과정에 명시한 공교육을 외면하고 변칙, 탈법 운영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다. 이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일, 공

교육 정상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입시교육이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입시학원이 된 것에서부터 인성 교육의 실종,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입시제도에 있다. 혁신학교가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을 해도 입시교육을 그대로 두고서는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

위기의 학교는 비정상이 일상화된 학교다. 교직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라 학교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임의기구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다. 교육의 한주체로서 학부모는 학교 운영 참여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심의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사립은 자문기구요, 공립은 심의기구다. 인사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라는 기구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친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학교장의 들러리가 되고만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혁신학교 의식을 갖춘 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혁신학교운영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혁신학교 의식을 갖춘 교사 찾기라고 한다. 모범생을 골라내는 임용고사가 그렇고 친편일률적인 교사연수가 그렇다. 시험문제를 족집게처럼 잘 풀어 교사가 된 선생님들,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가르치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느 단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연수를 받는 것도 아니다. 결국, 입시준비나 시키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르치기에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역사의식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양성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요즘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점수계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능한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되는 승진구조에서 아이들이 좋아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가르치는 교사는 무능한 교사가 된다. 행정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하는 현재의 승진제도에서 아이들을 대상화시키거나 철새처럼 점수를 위해 벽지까지 찾아다녀야 하고 평가자인 교장 선생님에게 손금이 닳도록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교원평가제가 있기는 하지만 교원평가제가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없다. 사심 없이 아이들이 좋아서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학교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다섯째,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폭력과의 전쟁까지 선포하고 폭력기록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수단까지 동원했지만, 학교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심성이 나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등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사교육비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인성교육 문제 등 학교 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공교육을 정상화를 못해 나타난 파생적인 결과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능아식 땀질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인성교육을 학원에서 배우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방과 후 학교나 EBS가 등장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한계상황에 처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입시문제, 대학서열화문제, 학벌문제를 두고 아랫돌 빼 위돌래기식 처방으로 어떻게 학교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인지학에 기초한 발도르프 교육운동

— 원시반본. 회광반조의 교육관

글 • 박규현(한국발도르프협동조합 이사장)

발도르프는 원래 담배 공장 이름이었다. 1세기 전 이 공장의 주인이었던 에밀 몰트는 당시 인지학을 창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상이 루돌프 슈타이너를 초대하여 인지학 원칙에 기반한 교육을 지향하는 최초의 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를 모범으로 삼는 교육운동이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에 퍼져나가 지금은 인지학 교육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90년대 발도르프 교육이 수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과열된 입시 구조와 여러 현실적 문제들에 막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구조 전반이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입시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새로운 교육철학과 운

동에 대한 요구는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지학(anthroposophy)은 '인간에 대한 지적 이해'라는 뜻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라면 철학에서 다루는 존재론과 같은 성격이었지만, 인지학은 근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종교적인 관점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기존 철학과는 구별된다. 그 핵심 내용은 인간의 내면에 신성이 있어 이를 발견하고 계발하는 것이 교육의 보편적 가치이자 이념이라는 것이다. 물리적 신체와 정신적 이성에 더해 고도의 영적 능력 자체가 인간에 내재해 있고 이 가능성의 계발을 통해 대자연과 우주를 향해 열려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된다고 본다.

인간 외부에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재자로서 유일신을 상정하는 서구 종교 문화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인간 내면의 신성'이라는 생각은 인류사 고등종교들에 보편적인 시각 중 하나다. 힌두교의 아트만이나 불교의 불성, 유교의 성, 도교의 도, 동학의 인내천이 모두 비슷한 의미를 내포한다. 굳이 종교를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역시 실제 내용은 동일하다. 그런 면에서 인지학 교육운동은 새롭기는커녕 애초 있었던 장구한 근본 가치를 되살리자는 운동인 셈이다. (원시반본)

이런 운동이 지난 세기부터 지금까지 각광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가 교육의 근본을 상실했다는 현실에 대한 반증이다. 지금 교육 현실은 교육이라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혼란스럽다. 영어 education은 문자 그대로 내면의 천성을 계발, 실현한다는 뜻이다. 그랬을 때 인간은 자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다. 그 바탕 위에서 인간관계와 사회 질서가 운영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요컨대 모든 교육의 근본은 인성, 가치관 교육이고 지식과 기술 교육은 그 바탕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육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구조다. 고등학교까지는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해, 대학은 취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 틀에 짜인 지식의 정답 찾기에 길들여지긴 하되,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자존감과 그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갖지 못하고 '피로사회'니 '감정충동조절장애'니 '일베'니 하는 유행 현상이 보여주듯 세상에 대한 좌절과 우울, 그에 따른 혐오와 냉소가 내면화됨, 극히 불안정한 성격이 사회 분위기의 대세가 되고 말았다.

인지학은 인간을 신체와 마음과 영혼의 결합체로 보고 각각의 영역이 대략 7년 주기에 따라 성장한다고 본다. 0~7세까지는 신체 감각이



내가 먼저 손잡아 줘시다.

어느 책에선가 읽은 얘기입니다.

길에서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이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편입니까?

선뜻 지갑을 열어 적선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편이신가요?

그 글에서는 전혀 색다른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선하되 그냥 달랑 동전만, 지폐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구걸하는 이의 손을 잠깐 꼭 잡아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그이 손을 살그머니 잡고 돈을 건네주면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덕담을 한마디 덧붙여 주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이 어려움에서 어서 빨리 헤어나시길 빌겠습니다.”

…….

솔직히, 말 그대로 실천하기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비록 소리 내어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선하는 그 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저 이가 하루속히 구걸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잡고자 하는 마음, 내 가족과 친지, 못 이웃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8~14세까지는 감수성과 오성 능력이 15~21세까지는 이성과 그를 넘어선 직관 능력이 계발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때에 맞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의 기본 철학이다. 더불어 인간의 기질을 4계절 성질의 반영으로 보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나누어 발달 단계 못지않게 이 기질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구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인도의 4대 사상-지수화풍으로 세상이 이루어졌음에 영향받아 정립된 것인데 실제 의미는 우리의 사상체질과 동일하다) 이러한 교육은 결국 ‘나는 무엇인가?’라는 종교 보편의 내면 관조에 대한 질문으로 학생들의 시선을 유도하고 수행적이고 경건한 삶을 지향하도록 가르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유불선에 공통된 수행 방법으로

서의 ‘회광반조(지혜의 빛을 외부가 아닌 내면으로 돌려 비춤)를 익히고 소아(小我)에 기반한 탐욕과 에고를 넘어서 ‘영혼이 자유로운’ 인격을 형성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둔다.

기술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 본성과 영적 성숙을 외면한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오늘날 맹목적 이윤 추구와 편리에 매몰된 현대 문명의 상황은 더욱더 ‘근본적인 가치’를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행적 삶의 태도가 건강한 시민의식과 공공성을 높이는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참으로 절실한 때다. 그런 점에서 원시반본을 지향으로, 회광반조를 방법으로 삼는 발도르프 교육은 우리 시대 사회적, 공공적 영성의 진작에 교육적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규현_ 현재 아이클 생협 인문, 문화 자문위원과 한국발도르프협회(함께 크는 우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며

글 • 영혼이 엄마

화창한 봄날...

산에는 진달래,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해 주던 날, 우리 가족은 생(生)과 사(死)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삼 남매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에 삶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꿈이지... 꿈? 꿈이지!’

이어지는 큰 딸애의 울부짖는 슬픈 여운의 목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참으로 꿈이었으면 좋으련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한 줌의 가루가 되어 사랑하는 아들의 가슴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정리 많은 막내 딸애가 ‘아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해요.’하고 꼭 안아 주었던 날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새기면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선인들의 말씀, 아픔을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은 진리였습니다.

한 조각의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인간의 삶도 자연과 같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 고개 숙이며 참회합니다.

소중했던 당신이었고, 고마웠던 당신이었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고, 당신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없지만 그리움으로 우리 가족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새 길을 찾아다니는 길목이라는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늦었지만 사십구재를 지내는 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신 길상사 대중 스님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 머리 숙여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 2015년 6월 어느 날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회원님 그리고 길상사 신도님 더 나아가 여러 독자님의 따뜻한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은 감동,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편집 방침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나 분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문화와 함께하는 2030 푸른 모임 안내

「맑고 향기롭게」중앙모임에서는 회원 또는 길상사 신도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 중 20대에서 30대 청년들 간의 문화 만남을 통하여 차후 봉사활동까지 펼칠 '2030 푸른 모임'을 새롭게 꾸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푸른 모임'의 명칭은 법정 스님께서 지어주신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의 초창기 이름으로 긴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의미도 있으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사무국에서 알림' 참조(www.clean94.or.kr)

네팔 지진 돕기 모금액 2차 전달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에서 네팔 대지진 희생자를 돕기 위해 지난 5월에 1차적으로 구호성금을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더프라미스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후 네팔 현지상황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자 길상사 경내(일주문, 진영각)에서 모금된 구호성금과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네팔 돕기 지정후원금을 모아 전역 네팔 현지에 있는 사찰 '양도 곧장 초량'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지 마을 주민들에게 텐트, 생수,

식량 등의 구호물품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의 날갯짓이 국내 이웃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의 작은 나비효과를 응원해 주시고 맑고 모금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네팔의 이웃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모금액 : 7,096,020원 + 1달러
- 도움을 준 지역 : 카투만두 북쪽 '신두팔축' 지역

2015년 숲기행 : 자연생태와 문화 그리고 역사의 어울림을 찾아서

6월 숲기행 일정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우려와 안전예방을 위한 조치로 취소되어, 일정을 한 달씩 이월하여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65세 이하
- 접수 : 숲기행을 다녀온 후 월요일(7월 6일)부터 전화접수 (02-741-4696)
- 준비물 : 개인점심, 식수, 간식, 모자, 등산화, 필기구 등(날씨를 꼭 확인하여 비 올 가능성이 있는 날에는 우산 준비)
- 참가비 조정 : 7월 ~ 9월 참가비 : 30,000원(회원, 봉사자, 신도, 일반 참가자 동일하게 적용함)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입금계좌 :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8월 일정 안내>

- 8월 1일(토). 충남 부여 부소산의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탐방
보령 성주사지 탐방 → 전통연못 공남지 탐방 → 정림사지 탐방 → 부소산성, 고란사 및 부소산의 자연생태탐사
<숲기행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녹색나눔 장터 참여하실분을 기다립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누고, 버려진 옷을 이용한 재활용 리폼제품을 판매하고,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녹색 나눔 장터'를 3월~11월 마지막 일요일(상황에 따라 변동되기도 함)길상사 경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터에 참여하실 분은 새 물건이 아닌 중고물품이어야 하고, 판매 수익금의 20% 정도를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후원해주시야 합니다. 아울러 장터를 함께 진행하고 도움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장터에 나온 물건들을 판매하고,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함께 해 줄 생활 속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행이 지나 안 쓰는 원단 기증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중앙모임에서는 생활 속에서 의류 재순환(리사이클링)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지는 원단(면, 실크, 폴리, 자카드, 생지 등)을 기증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기증해주시는 원단은 가방, 매트, 앞치마, 실내화 등 재순환되어 수명을 연장시키고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의류 리폼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옷, 한복 천,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장터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류 리폼 봉사팀에 함께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의류 리폼 봉사팀은 자발적인 선의가 모인 자원 활동가의 사랑방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류 재단, 디자인, 리폼, 리사이클에 소질과 재능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결식이웃 밀반찬 조리 활동)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 등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해주시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만남' 함께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노인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어르신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묻거나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화말벗 봉사에 참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전화말벗 자원 활동은 결식어웃 후원 대상자 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인 전화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활동내용 : 이웃과의 관계가 소홀한 노인들

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주 1회 이상 말벗 서비스를 통한 정서적 지원. 매월 1회 봉사자 정기모임을 통하여 봉사자간에 교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가짐.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목)/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26일(넷째 일) 오전 11시/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목, 금요일(1,2,15,16,22,23,29,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김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6,13,20,27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 /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모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5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
- 진인노인 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12일)/오

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3일)/오후 1시30분/싯달타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8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5일(첫째 일), 26일(넷째 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7,14,21,28일(수)오전 10시(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7,14,21,28일)/세계일화실
- 녹색나눔 장터 : 26일(넷째 일) 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어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사-음식조리, 19사-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 강의/12시 30분-점심 및 차담/2사-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양양시설) 정기방문 자원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양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 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아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말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말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지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수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 광주모임에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8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백중90일 아미타기도

- 시간: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백중초재, 7월 17일(금)
- 백중2재, 7월 24일(금)
- 백중3재, 7월 31일(금)

다라니기도

- 일시: 7월 4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무료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7월 11일(토) 오후 8시 30분
~ 7월 12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무료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7월 16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1만원

보름기도

- 일시: 7월 30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1만원

관음재일

- 일시: 7월 9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기도비: 1만원

지장재일

- 일시: 7월 3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 기도비: 2만원

2016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능100일 기도

- 입재일: 2015년 8월 5일(수) 9시 50분
- 회향일: 2016년 11월 12일(목)
- 장 소: 극락전
- 시간: 오후2시 ~ 4시
- 동참금: 십만원

신행단체 봉사자 모집 안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각 신 행 단계별로 보살행을 실천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실천하시는데 관심 있는 불자님들의 주저 없 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 실 신행단체는 거사림회, 보현회, 문수회, 지 장회, 보리회, 천수회(렘플), 청년회, 합창단, 새 신도봉사회, 연등회입니다. 자원봉사자로서 길 상사와 인연공덕 지으시고 성불하십시오. (문 의: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백중 4재	8월 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5재	8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6재	8월 2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백중 7재(회향) 하안거해제	8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8월 1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8월 8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8월 2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8월 2일, 31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8월 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8월 1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

2015년 여름 선 수련회

향기로운 차와 지혜로운 대화!
참 나를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있는 곳!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길상사 여름 선 수련회**에서
묵언과 참선을 통해
텅 빈 충만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차수	일정	대상	비용
1차	7월 27일(월) ~ 7월 28일(화)/1박2일	초등1 ~ 3학년	5만원
2차	7월 28일(화) ~ 7월 30일(목)/2박3일	초등4 ~ 6학년	7만원
3차	7월 30일(목) ~ 8월 1일(토)/2박3일	중·고등학생	8만원
4차	8월 3일(월) ~ 8월 6일(목)/3박4일	성인	15만원
5차	8월 7일(금) ~ 8월 10일(월)/3박4일	성인	15만원

- 접수 : 7월 1일부터 ~ 정원(입금자 우선) 마감까지
길상사 홈페이지(수행터-템플스테이-여름 선수련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길상사템플스테이
- 문의 : 교무실 02-3672-0035/종무실 02-3672-5945

